# 소년단

1960.6

# 6.1절의 노래

박 승수

하늘엔 두둥실 흰구름 뜨고
꽃들은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새들은 즐겁게 우짖고 있는
오늘은 6•1절 국제 아동절
동무들아 노래하자 행복의 노래
동무들아 노래하자 평화의 노래.

오늘의 우리 행복 가꾸워주신
우리의 조국은 은혜롭구나
원수님 따뜻한 품 속에 자란
우리의 앞길은 넓기도 하네
목청껏 노래하자 우리의 조국
꽃다발을 드리자 김 일성 원수님께.

전쟁의 검은 구름 몰아내려고
온세계 어머니들 싸우고 있죠
우리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온세상 어머니들 싸우고 있죠
동무들아 인사하자 감사드리자
우리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먹을것, 입을것, 살곳이 없어
남녘땅 동무들이 울고 있어요,
불상한 남쪽 동무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싸워 나가자
온세계 어린이들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노래하며 춤추게 하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 소년단 1960년 6호 내용

# 우리의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에 걸쳐 진행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에서는 조선 소년단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 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조선 소년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오 현주 위원장 선생께서 보고를 하시였습니다.

위원장 선생께서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창립해 주신 우리 조선 소년단이 그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의 령도 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 온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앞으로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 당과 김 일성 원수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 소년단은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왔다.

조선 소년단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았으며 아동 혁명단의 활동을 모범으로 하여 조직 되였습니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을 도우며 또 직접 왜놈을 반대해 싸운 아동 혁명단의 열렬한 애국심과 강철 같은 규률, 조직에 대한 충실성,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 등 고귀한 혁명 정신과 빛나는 모범은 그대로 오늘 우리 조선 소년단의 활동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소년단은 이처럼 아동 혁명단의 모범을 본 받아 1946년 6월 6일 김 일성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창립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가르침 따라 조선 소년단은 자기의 대렬을 꾸리면서 나라의 민주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는 민주 개혁을 도왔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해 싸운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소년호 비행기》, 《소년호 땅크》헌납 운동, 인민 군대 후방 가족 원호 사업, 소년 자위대 등으로 전선과 후방을 힘껏 도왔습니다.

특히 원쑤들이 우리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기어들어 왔을 때는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를 비롯하여 선천, 고원 등 곳곳에서 소년단원들이 빨찌산을 조직하여 원쑤와 용감히 싸워 조선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키였습니다.

전후에도 조선 소년단은 나라의 복구 건설과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선 소년단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주신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자기의 구호를 받들고 튼튼한 사상과 지식을 키우며 몸을 단련하면서 우리 당의 붉은 어린이들의 대오로 자라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교양과 학습에 더욱 힘쓰면서 피마주, 해바라기를 심으며 토끼를 기르는 등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널리 진행하여 나라에 《소년호 렬차》, 《소년호 기중기》, 《소년호 뜨락또르》를 선물하여 배우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자랑을 세상에 떨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조선 소년단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대중적 단체로 자라고 발전하였으며 모든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원수를 모신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나라의 발전과 그리고 날로 높아가는 소년단원들의 요구에 알맞게 우리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임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소년단에서는 소년단원들을 우리당의 붉은 어린 전사가 되도록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잘해서 소년단원들은 모두가 지난날의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 처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도 용감하게 이기며, 소박하고 겸손한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년단에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빛나는 혁명 활동을 잘 배워 원수님의 고귀한 혁명 정신을 하나하나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의 활동과 업적을 배우며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단에서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크루쇼크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를 행복에로 이끄는 조선 로동당에 대하여 배우며, 당의 옳바른 정책들과 그 결과에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찬란한 성과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모두가 당을 받들고 당이 내놓는 일을 실천하는데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단에서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받았으며 소년단과 민청에서 자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영웅들과 어린 애국자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서 싸우는 로력 영웅 또는 로력 혁신자들의 모범을 따르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교양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단원의 으뜸가는 임무는 학습입니다.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쓸모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재간을 키워 나가는 온갖 다양한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합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실지 해 보고 만들어 보며 익히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크루쇼크를 조직하여 소년단원들이 자기 희망 대로 널리 참가 하게 하며 금년도 소년단원들 앞에 나선 토끼 기르기,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 외화로 되는 물건들을 모으는 일등《꼬마 완충기 계획》활동을 잘하며 《소년 위생 근위대》, 《소년 록화 근위대》, 《애림대》의 활동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건설을 도우면서 기술과 지식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단에서는 문학 예술, 체육써클 사업도 흥미 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잘 부르며 시도 읊으며 항상 명랑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말입니다.

소년단에서는 몸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아침 조기 체조도 하며 항상 체육, 오락, 유희 등을 널리 실시해야 합니다.

## 소년단 조직을 규률 있고 자립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년단이 자기 임무를 잘 해나가자면 그 조직이 튼튼히 꾸려지고 보다 규률 있는 자립적 집단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소년단 조직이 강화되자면 모든 소년단원들이 소년단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며 소년단 조직 생활에 스스로 잘 참가하여 소년단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그를 실천하는데 힘써 참가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를 지도하시면서 소년단 생활은 조직에 복종할 수 있게하는 마음을 키우는 준비 단계이라고 하시면서 소년단 조직에서는 앞으로 민청 생활을

할 수 있게하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입단할 때로부터 소년단 생활을 마치고 민청원이 되는 때까지 규칙 대로 생활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단 모임을 제때에 진행하고 조직의 분공을 주어 그를 실천하는 실제 투쟁 속에서 단련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 단체에서는 당에서 내놓은 일과 민청에서 주는 과업 그리고 소년단원들의 조직 생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단 총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분단 총회는 1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단 조직이 튼튼해 지자면 소년단 열성자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하며 단 및 분단 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을 옳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자면 열성자들은 소년단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1961년 여름부터 평양시 소년 궁전에 소년단 열성자 학교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의 영예를 간직하게 하며 소년단 생활에 더 잘 참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소년단의 상징인 기'발, 넥타이의 뜻을 똑똑히 알게하며 이를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할 바 없이 발전하였고 따라서 소년단 사업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전의 소년단 규정은 발전한 우리 나라 형편과 그에 따라 자라고 높아진 소년단원들의 요구에 비해 볼때 많은 데가 낡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단 조직을 강화하고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년단 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개정된 소년단 규정에는 조선 소년단이 어떤 단체이며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소년단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년단에 입단하는 나이가 만 9 세로부터 만 15 세로 되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만 9 세로부터 만 14 세로 하고 특별한 때에는 만 16세까지 소년단 생활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던 필단 즉 소년단 생활을 다하고 민청에 가맹하면 필단을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무와 권리, 표창과 책벌 등 많은 것이 새롭게 규정되였습니다.

소년단 단체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이번 민청 중앙 위원회 제10차 확대 전원 회의 결정 내용과 소년단 규정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자기 단체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단 단체에서는 분단별로 매주 1회 1시간씩 전원회의 결정 내용과 소년단 규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에게서 해설을 듣거나 이야기 모임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한 주일에 한번씩 진행하는 이 학습에서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따라 자기 분단에서 고쳐야 할 일들을 토론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분단에서는 다른 분단의 경험들과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며 소년단 생활에 모범적인 동무들을 모임이나 벽보 등에 많이 소개하며 이들의 모범을 본 받게 하는 사업을 진행 해야 합니다.

분단에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독보회도 가져야 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부락별로 반에서 강습도 조직하며 견학 사업들도 널리 조직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소년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힘씁시다.

## 한아동혁명단원이 걸어온 길

①총살을 래일로 앞둔 어느날 밤, 온 거리에서는 불시에 총 소리와 만세 소리가 터졌다. 그동안 원주와 박 재관, 최 옥순들의 면밀한 정찰에 근거하여 유격대가 진격해 온 것이다. 왜놈들과 앞잡이 놈들은 어쩔바를 몰라 갈팡질팡 하였다.

②원주는 어느사이엔가 박 재관 형님의 품에 안겨있었다. 《원주야! 나다! 박 재관이다.》 박 재관 형님의 품에 안긴 원주는 스르르 눈을 떴다. 주위에 늘어선 름름한 유격대원들을 보자 원주는 그제야 안심이된 듯 다시금 눈을 감았다. 이때의 어린 혁명전사 원주의 얼굴에는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이 어려 있었다.

③유격대에 의하여 해방된 거리는 인민들의 목메인 만세소리로 들끓었다. 현철 형님의 팔에 안겨 이를 바라보는 원주의 가슴은 자꾸만 뜨거워 났다. 그는 굴하지 않고 싸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④유격대는 왜놈들로부터 많은 식량과 무기 탄약들을 빼앗아 가지고 부락을 떠났다.

승리하고 돌아 오는 유격대원들은 모진 고문에 지친 원주를 들것에 눕혀 가지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유격대원들의 손에 들리워가는 원주의 마음은 바위처럼 든든하였다.

⑤근거지에 돌아 온 원주는 유격대원들과 아동 혁명 단원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아가며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다. 아동 혁명 단원들은 매일같이 깊은 밀림 속을 찾아 가 많은 딸기며 머루들을 따다 원주에게 주는 것이였다.

⑥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원주를 찾아 온 현철 형님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알려 주었다. 공청에서는 원주를 공청에 가맹시킬데 대하여 의논하였다는 것이다. 원주는 금시에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듯 기뻐 날뛰였다.



—보천보 전투를 회상하며—

글 한 천 추　　　그림 리 동 춘

그때로부터 벌써 올해 스물 세 돐을 맞지만 해마다 6월이 오면 나의 머리에 늘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1937년 6월 2일 히샤즈거우 밀영에서 입니다.

번쩍이는 총창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고 나는 다음과 같은 김 일성 원수님의 엄숙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지들! 기다리던 날은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선에 나가 울리는 총소리는 원쑤들의 머리 우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동포들을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희망에로 고무하는 신호로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드라도 반드시 원쑤들을 소탕하고 우리 조선 인민 혁명군의 위력을 떨치며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우리들은 힘차게 조국으로! 조국으로! 걸음을 다우쳤습니다.

이날 우리는 조선 사람이 많이 사는 구시'골이라는 부락에 도착하여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들 살'길을 찾아 조국을 떠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유격대 아저씨들이 왔다!》, 《우리 군대가 왔다!》 고 하면서 맨발로 뛰여 다니던 구시'골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순사놈들이 마을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못살게 굴던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날날이 하면서 언제 왜놈들이 망하는가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마을 아이들이 부르던 혁명 가요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빨리빨리 나가자
제국주의 군벌들은 죽기를 재촉코
강탈과 학살을 여지 없이 하누나…

왜놈을 쳐부시려 간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신이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조국 광복회 회원 아저씨들이 배워 준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화려한 우리의 거리를 지나 학교로 가는 소년단원들을 볼때마다 그때의 구시'골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

의 품에 안겨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소년단원들에게 그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집니다.

6월 3일 아침 제비둥 마루에 올라 황홀한 눈으로 그립던 조국의 아름다운 산들과 강물을 바라보며 나는 왜놈들을 빨리 쳐부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힘껏 총대를 틀어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국에로의 힘찬 발'길을 옮겼습니다.

구우수강과 압록강 물이 합치는 물'동가까이에 오니 류벌부인 김 치근, 김 형근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여 우리는 뗴'목을 타고 그처럼 그리던 조국 땅에 첫 발'자국을 옮겨 놓았어요. 새벽을 앞둔 조국의 맑은 공기를 가슴 가득 마시며 보천보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곤장덕에 올랐습니다.

휴식 명령을 받았으나 아무도 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잠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조국의 향기 그윽한 풀냄새를 맡으며 총총한 별들을 세이며 새날에 있을 감격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훤히 동쪽 하늘이 밝았습니다.

1937년 6월 4일!

얼마나 그리던 조국의 아침입니까! 이날은 보천보에서 좀 떨어진 대진 장날이고 또 단오 명절 전날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장보러 왔습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적정에 변동이 없는가를 알아 내기 위하여 마 동회, 김 운신 아저씨와 김 확실 누나를 보천보 거리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계란 장사나 길가는 사람으로 몸 차림을 바꾸었지요. 김 확실 누나는 계란 값을 비싸게 해가지고 놈들의 행동을 살피며 거리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주재소로 갔답니다. 놈들은 계란 값이 비싸다면서 눅게 부르더래요. 닭과 계란이라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놈들입니다. 김 확실 누나는 계속 고집하다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놈들이 부르는 값대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재소 안의 모든 것을 낱낱이 머리에 새겨 넣었지요. 이들이 돌아 온 후 곤장덕 수림 속에서 간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각 구분대 마다에 명령을 내리시였습니다.

나는 오 백룡 선생과 함께 주재소 습격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때 오 백룡 선생은 기관총수였고 나는 탄약수였지요. 오 백룡 선생의 오른쪽에 선 나는 뛰는 가슴을 누르며 주재소로 다가 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다가 붙어 안의 동정을 살펴 보니 순사 두 놈이 죄없는 농민 두 사람을 심문하고 있었습니다. 두 주먹이 불끈 쥐여지며 이가 갈리는 것을 겨우 참았지요.

한초 두초…
긴장된 시간은 흘렀습니다.

쥐죽은듯 고요한 보천보의 밤 하늘을 깨뜨리는 원수님의 신호 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오 백룡 선생이 경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복쑤의 탄알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포등이 깨지며 경찰놈들의 죽어가는 외마디 소리가 들렸어요.

일제히 안으로 뛰여 들어 가 보니 한놈은 그 자리에 죽어 넘어지고 한 놈은 돼지 우리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산림 보호구, 농사시험장, 우편국 근방에서도 콩 볶듯한 총 소리가 났습니다.

놈들의 기관들에서는 활활 불'길이 타올라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지요.

침묵을 깨뜨리고 일어난 보천보의 밤 거리는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었습니다.

《김 일성 장군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목이 메게 부르며 사람들은 우리를 그러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조선 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한덩어리로 뭉쳐 일본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조국을 찾는다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원수님 말씀의 마디마디를 새겨 들으며 우러러 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빛났습니다. 철수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듯 굽이쳐 흐르는 압록강변에 이르러 우리는 배낭 속에 흙 한줌씩을 간수했습니다.

조국의 흐뭇한 흙냄새를 맡으며 백배천배의 힘을 내여 일본놈들을 쳐부시자는 한결같은 마음에서였지요.

뗴'목을 타고 강을 건너 구시'골 부락에 닿았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지어 놓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곧 산마루에 올랐습니다.

날이 다 밝아서야 보천보의 소식을 들은 혜산 경찰서의 군경놈들은 야단법석이였습니다.

6월 5일 아침 오가와란놈이 거느린 경찰 중대놈들이 구시'골에 허겁지겁 달려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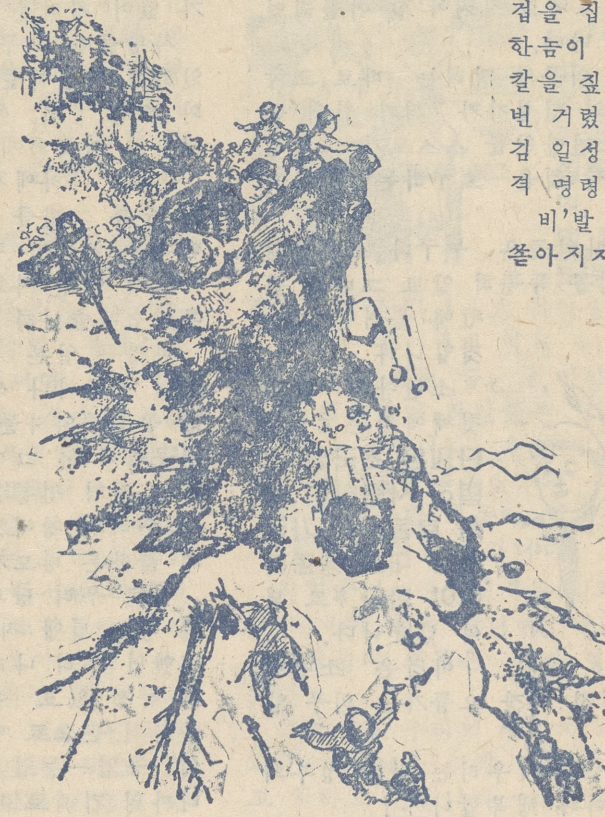
우리가 네문의 기관총을 걸어 놓고 놈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잔뜩 겁을 집어 먹은 장교 한놈이 두 손으로 긴 칼을 짚고 두리번두리번 거렸습니다. 이때 김 일성 원수님의 사격 명령이 내렸지요.

비'발 같이 탄알이 쏟아지자 놈들은 무리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놈들은 나중에는 바위짬에 머리를 틀어 박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큰 돌을 굴렸지요.

구태여 탄알을 없앨 필요가 없었지요. 겨우 살아남은 서너 놈이 절룩거리며 달아 나는 꼴을 보며 우리는 히샤즈거우의 밀영으로 향했습니다.

건너편 조국의 땅 보천보에서는 그냥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은 일본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삼천만 조선 사람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었습니다.

#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가요

이번에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 회의에서 개정된 조선 소년단 규정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더 높고 영예로운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는 소년단원이라면 누구나가 그대로 지켜야 할 이를테면 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의무와 권리는 바로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소년단원들 스스로가 그처럼 생활하고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똑똑히 알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소년단의 의무 첫째에서는 **《소년단원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 로동당이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단원의 의무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무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당과 정부의 품 속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당과 조국의 품 속에서 인민 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학교에 다니며 책과 학용품은 물론이고 교복과 외투까지 공급 받으며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은 모두 무료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다른 자본주의 나라나 남조선 같은 데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바로 지주, 자본가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처럼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일터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일터에서 흥겹게 일하며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소년 궁전, 아동 공원들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씩씩하게 뛰놉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일하면 일할 수록 그만큼 살림은 더욱 넉넉해지고 행복은 늘어만 갑니다.

그럼 이런 사회주의 조국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해 15년 동안이나 싸운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 로동당과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지난날 그렇게 가난하고 락후했던 우리 나라는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 없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에게 이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조국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바치는 것을 서슴치 않으며 힘과 있는 지혜를 다해 싸웁니다.

지난날 혁명 투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당과 조국의 부름 따라 자기의 피끓는 심장으로 적 화구를 막은 김 창걸, 리 수복, 박 원진 영웅들을 비롯한 수 많은 공화국 영웅들과, 빨찌산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용감하게 죽은 어린 애국자 서 강렴,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는 수 많은 로력 영웅, 로력 혁신자 아저씨들이 그러합니다.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은 이처럼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집을 사랑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당과 조국의 배려 밑에 날로 행복이 늘어 가는 자기 집, 번영하는 자기 고향, 마음껏 공부하는 학교—이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당과 조국이 부르는 길이라면 목숨도 서슴치 않고 바치는 그런 애국자로 자기를 준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어려서부터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당이 숨쉬는 대로 숨쉬며 당이 내놓는 일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해 내는 그러한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그처럼 당과 조국이 바라는 애국자로 장차 믿음직한 조국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처럼 당과 조국을 사랑하며 당과 수령 앞에 충성을 다하는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다음 의무 조항들에서 찾아 보기로 합시다.

의무 둘째에서는 **《소년단원은 열심히 학습하고 과학과 기술을 배우기에 힘쓰며, 문예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되여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이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문화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높은 과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높은 문화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높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에 힘쓰며 자기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크루쇼크에 참가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보면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지며, 책도 즐겨 읽고 노래와 춤도 배우며, 악기도 다룰줄 알며, 시도 읊을 줄 알며, 작문, 동요, 동시 등도 지을 줄 아는 문화적 소양이 높은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 세째에서는 **《소년단원은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우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동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살 것을 마련해 줍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루도 살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도 바로 인민들의 꾸준한 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하면 일 할 수록 행복이 늘어 갑니다.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로동은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건들이 날로 늘어 가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로 흥겨워져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요! 도시와 마을, 학교와 구락부, 공원, 유원지들이 날을 따라 더욱 화려해지며 또 더 많이 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년단원들은 바로 이처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로동을 사랑하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산들을 귀

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항상 자기 집일을 도우며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는 일, 책상, 걸상을 자기 손으로 수리하는 일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실습지를 가꾸며 사회주의 건설을 돕기 위한 파철 수집, 토끼기르기,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 등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책상, 걸상, 극장, 공원, 유원지의 물건들과 나무 한대, 꽃포기 하나, 협동조합의 물건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 네째는 《**소년단원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항상 명랑하고 용감하여야 한다.**》 입니다.

아무리 지식 있고 재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몸이 약하고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는 그런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무슨 쓸 데가 있겠습니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씩씩한 혁명 투사가 되자면 몸이 튼튼하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사람으로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에게서 본받아야 합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투사들과 아동 혁명단원들은 어떠한 어려운 행군과 어려운 전투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원쑤와 싸우는 어려운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연극을 만들어 공연 했으며 혁명 가요를 불러 자기들의 투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항상 체조와 유희, 행군, 등산, 전적지 답사, 수영, 달리기 등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언제나 즐겁게 뛰놀고 춤추고 노래하며 시를 읊는 등으로 유쾌하고 명랑하게 생활하면서 어떤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투지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 다섯째는 《**소년단원은 동무를 사랑하고 웃 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에 밝고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들이 당과 김 일성 원수님 주위에 튼튼히 뭉쳐 서로 돕고 받들면서 당이 가리키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단원들은 학교에서 모두 함께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배우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단결해 나아가며, 웃어른을 존경하며,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우리 인민의 힘을 더욱 단결시키며 강대하게 만드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항상 동무를 사랑하며 동무가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 주며, 어린 동생들과 병자를 도우며, 웃어른들을 존경하며 인사성이 밝고 아름다운 말을 쓰며, 거리와 길'가, 극장과 공원, 유원지들에서 질서를 지키는 등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단, 분단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황북도 사리원시 동리 중학교 단에서—

글 조 병권 그림 남 현주

소년단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가 있은지 한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이 학교 단 위원회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자기 학교의 단 사업을 한층 더 발전 시키기 위해 힘써 왔다. 그리하여 지금 이 학교의 단 사업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

## 분단 조직을 튼튼하고 규률 있는 집단으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내용을 실린 《소년신문》이 나온 날 단 위원회에서는 곧 열성자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는 《우리 학교의 단 사업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여기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먼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 내용과 소년단 규정 학습을 해설, 담화, 이야기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동무들도 있었고 단, 분단의 실제 사업을 결부하여 토론하면서 단, 분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동무들도 있었다. 또 어떤 동무들은 10차 확대 전원회의 결정 내용과 소년단 규정을 학습하는 일과 함께 다가 오는 국가 졸업 시험 및 진급 시험을 더 잘 준비하며, 토끼 기르기,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를 잘해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학교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리며 자기들의 몸을 단정히 거두는 일에서도 모두 모범이 되자고 했다.

이밖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단 위원회에서는 열성자 동무들이 내놓은 의견에 의해서 앞으로 단과 분단에서 해나갈 계획을 짰다.

다음날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단 위원회와 분단 위원회들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단 위원들은 먼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10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토의 되였는가를 빨리 알려 주기 위하여 확대 전원회의의 내용이 실린 신문을 가지고 분단에 나가 읽어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다시 확대 전원회의 내용을 다섯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자기 분단 실정과 결부시켜 가면서 한조항씩 학습 하도록 지도하였다. 분단들에서도

자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짰다. 그중에서도 자기 분단에 비추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간을 많이 내여 해설, 담화, 이야기 모임등의 방법으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 4분단에서는 《분단과 반의 자립적 활동을 높이는 것은 단 조직을 강화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제목에 중점을 두어 학습했다. 그리고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조목별로 토론했다. 그것은 자기 분단에서 소년단 조직 생활이 제일 약하기 때문이였다.

사실 4분단은 지난 기간 분단 위원회와 분단 모임조차 제때에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에게 분공도 잘 조직해주지 않았다. 분단 위원회가 이처럼 활동을 잘 안한데로부터 일부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의 영예를 간직하지 못하고 소년단의 조직 규률을 잘 지키지 않았다. 많은 소년단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소년단 휘장을 달지 않고 다니였다. 리 정호, 리 영길, 장 영호 동무들은 쩍하면 분단 모임에서 뺑소니 치기가 일수였다. 그리고 이들은 분단에서 내놓는 일도 잘하지 않고 밀려다니면서 소년단원 답지 못한 행동까지 하였다. 또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모임에서 무엇을 하자고 결정하고는 그것이 실천되였는가 안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시는 돌보지도 않았고 총화도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분단에서 하자고 한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였고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애타하는 동무가 없었다. 4분단 사업은 이러한 형편이였다.

그래서 분단 위원회에서는 전체 동무들에게 소년단 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그를 규률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아동 혁명단의 사업 방법》, 《아동 혁명단의 규률》(《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에서 뽑아냄), 《소년단 규정》 등을 잘 가르쳐 주었다.

분단에서는 아동 혁명단 생활을 한 혁명 투사 김 정숙 선생님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하고 선생님께서 아동 혁명단에서의 조직 생활과 규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아동 혁명단의 조직 생활을 모범 받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모임도 가졌다.

다음으로 분단 위원회에서는 매개 동무들의 취미와 소질에 알맞는 분공을 주었다. 분단 모임 때 뺑소니를 제일 잘치며 조직 생활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리 정호 동무에게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에게 신문이 오면 새 소식을 동무들에게 읽어 주도록 하는 《독보원》의 책임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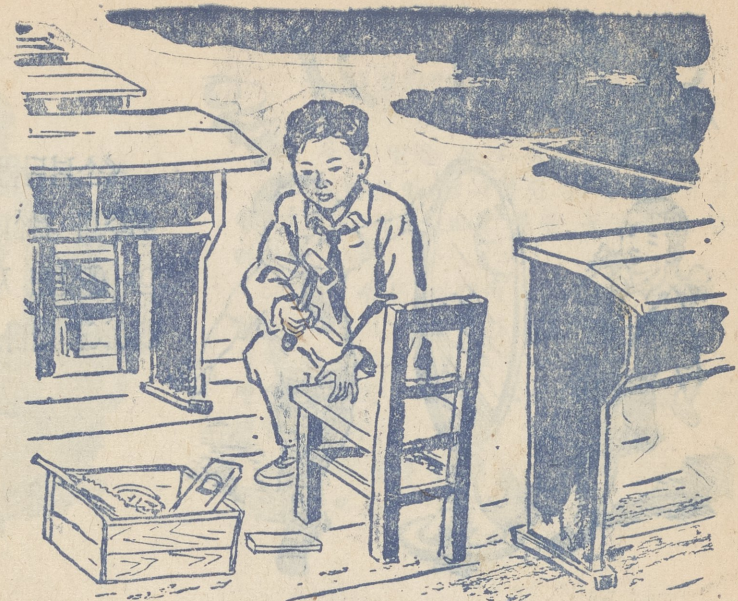
웠다. 최우등생인 최 문철 동무에게는 학습에 뒤떨어진 조 효국 동무의 학습을 도와 주도록 하는 일을, 그림을 잘 그리는 동무들에게는 분단 벽보 편집을 돕도록 하는 일등 거의 모든 동무들에게 분공을 주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분공을 주고 다음에는 그것을 잘 실천하도록 도와 주었다. 한 번은 분단에서 아동 혁명단원들의 활동을 내용으로한 장편 서사시 《붉은 꽃송이》에 대한 독서 감상 모임을 가지도록 계획했는데 이날 시 랑송을 영길 동무에게 맡겼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독서 감상회 날을 이틀 앞두고 영길 동무의 준비 정도를 알아 보았다. 그런데 영길 동무는 암송은 커녕 읽어 보지도 않고 있었다. 분단에서는 곧 도서관에 가서 책도 가져다 주고 랑송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를 도와 주었다. 독서 감상회는 계획 대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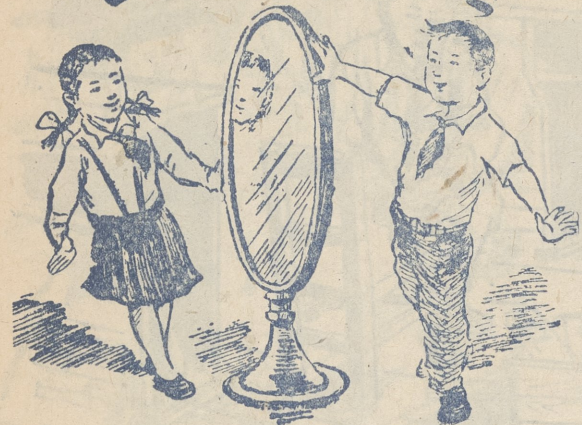
이렇듯 이 분단에서는 분단 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그를 규률 있는 자립적인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날로 늘어 가는 아름다운 행동

지금 각 분단들에서는 《소년단 규정》 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단들에서는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번씩 모임을 열고 소년단 규정을 조목별로 하나하나 토론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단 벽보에는 문답란을 만들고 소년단원들의 물음에 제때에 대답을 주고 있다.

소년단 규정을 토론하면서 소년단원들 속에서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자기들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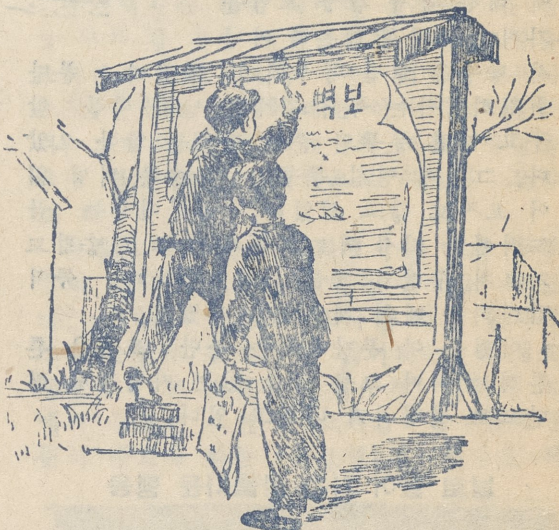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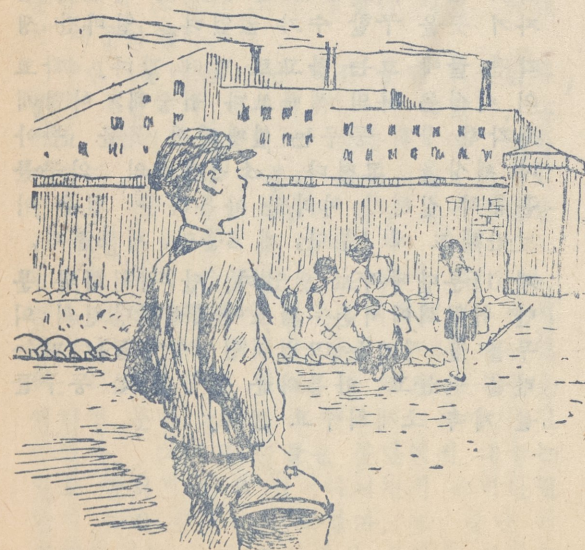
제 8분단에서 소년단원의 의무 《소년단원은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우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같이 애호 하여야 한다》를 토론한 다음날 이른 아침이였다. 교실에 들어선 천 상희 동무는 가름'대가 없어서 삐꺽삐꺽 노는 책상을 발견했다. 그는 책상을 수리하기 위해 곧 집으로 달려가 판자와 도구를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못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얼마간 생각던 끝에 그는 창고로 달려 갔다. 《학교의 책상은 나의 썰매보다 귀중해》 이렇게 생각한 상희 동무는 썰매에서 못을 뽑아다 책상을 고쳤다. 소년단원의 의무를 훌륭히 실행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은 이날만해도 제 1분단, 제 6분단, 제 8분단, 제 11분단에서도 있었다. 단 위원회와 분단 위원회에서는 벽보에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동무들》이라는 란을 만들고 아름다운 행동을 한 동무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다.

# 행동의 거울

《소년단원은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우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

—소년단원의 의무중에서—

### 누가 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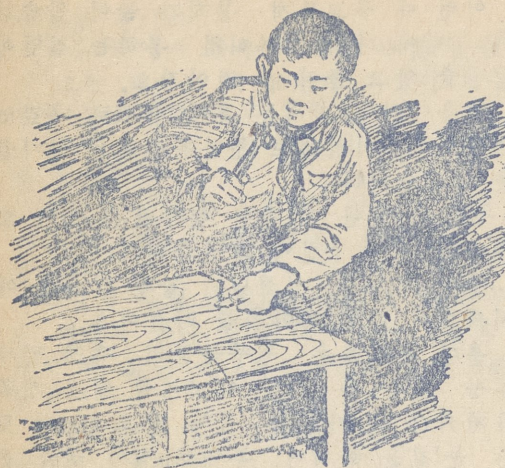
못쓰게된 벽보판을 고치기 위해 달려 온 관리원 아저씨는 《누가 고쳤을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벽보판을 고쳐 놓은 동무들은 강원도 문천군 문천 초등 학원 4분단 송 명현 동무와 리 인성 동무들이랍니다. 이들은 거리를 지나다가 못쓰게 된 벽보판을 발견하고 부락에 뛰여 들어 가 마치와 못을 얻어다 고쳤답니다.

### 공장 앞에 만든 꽃밭

행동의 거울엔 평남도 중화군 중화 중학교단 4분단 김 기화네 반 동무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봄 이들은 농기구 공장 아저씨들을 위해 공장 정문 앞에 꽃밭을 만들고 백일홍, 봉선화, 분꽃 등 여러 가지 고운 꽃씨를 뿌렸습니다.

반 동무들은 지금도 1주일에 한번씩 가서 꽃밭을 가꾸군 합니다. 공장 아저씨들은 꽃밭을 보실 때마다

《참 기특한 아이들이군》하고 반 동무들을 칭찬합니다.



### 새것처럼 고쳐진 책상

《이 착한 일을 누가 했을가?》

못쓰리라고만 생각했던 책상이 새것처럼 고쳐진 것을 보고 분단 동무들은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리 정광 동무의 책상 설합에서 장도리가 《떨거덩》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분단 동무들은 정광 동무가 책상을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리 정관 동무는 개성시 사직 중학교 4분단 동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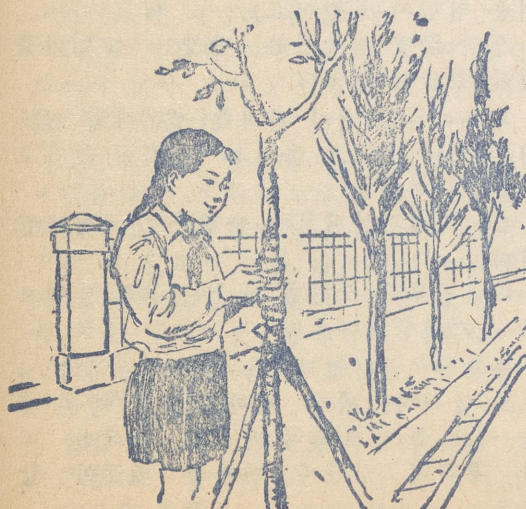
### 12km의 꽃길

거울에 나타난 동무들은 평남 온천군 대대 중학교 소년단원들입니다.

이들은 12km의 신작로'가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꽃이 피면 12km의 길은 꽃 속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 앞 공원도 화려하게 꾸리고 거리에 화단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꽃밭 사이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한답니다.

### 착한 동무

거울에 나타난 동무가 누군가구요? 황해북도 봉산군 마산 중학교 리 옥희 동무랍니다.

이 동무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잘 세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손'수건으로 감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동무입니까!

# 붉은 마음

—평양시 봉지 중학교 단
제 27분단 (인민반 4학년)에서—

글 김준규　　　그림 리동춘

《룡히 때문이야,》

위생 검열이 끝나자 분단 동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생 검열을 나왔던 초급반 형님들은 이 분단이 제일 뒤떨어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룡히는 발도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넌 다음번 부턴 밖에 나가 있어.》

룡히를 《짤룩이 짤룩이》하고 놀려 주길 잘하는 관옥이가 툭 쏘았어요.

룡히는 세살 때 병으로 다리를 몹시 앓아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관옥이는 제 혼자 이런 별명을 지어 가지곤 룡히를 짤룩이 짤룩이하고 놀려주군 했습니다.

그 다음번 위생 검열 때였어요.

《룡히가 보이지 않는구만》 이날 따라 분단에 오신 지도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관옥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때 공교롭게 룡히가 들어 왔습니다. 밖에 나가 기다리던 룡히는 검열이 끝난줄 알고 들어 온 것이지요.

관옥이가 울려대는 통에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분단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 분단 동무들은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단 동무들은 원쑤놈들의 총에 맞아 부상 당한 왕정대 아저씨를 업은 장복 아저씨가 쌀 자루를 목에 걸고 50리 깊은 눈'길을 헤치며 부대로 찾아 돌아 온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땀을 쥐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관옥이는 룡히를 생각했습니다.

룡히는 세 형님과 함께 있습니다.

룡히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전쟁 때 미국놈들의 폭격에 어머니마저 잃었답니다.

일하며 배우는 룡히네 네 형제는 다정스러워요.

그러나 형님들은 늘 일과 공부에 바쁘다보니 미처 그의 몸과 옷차림을 돌봐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런 사정을 알게된 관옥이는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뜻을 이어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으로서 룡히를 돕기는커녕 놀려 주기까지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생각 끝에 관옥이는 반장인 수현이를 찾아 갔습니다.

관옥이는 소년단 반실을 정운이네 집에서 룡히네 집으로 옮기고 룡히를 돕자고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했니?》 수현이도 기뻐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소년단 반실은 룡히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반 동무들은 룡히네 집으로 옵니다. 해질 때까지 그날 배운 것을 서로 돕고 물으며 배우고 헤여질 때면 룡히네 집안과 마당을 깨끗이 쓸지요.

반 동무들은 물까지 다 길어 놓고서야 집으로 갑니다.

오후 반에서 공부할 때면 아침 일찍 먼저 오는 차례로 제 집처럼 깨끗이 거두는 것이 버릇처럼 되고 있지요.

《룡히야 우리 어머닌 네 옷도 함께 빨아 준댔어.》

소년단 반실을 룡히네 집으로 옮겨 온 다음 날 학교 가든 길에 관옥이가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룡히를 둘러싼 반 동무들은 깨끗이 빨아 곱게 다려 입은 옷과 단정히 맨 붉은 넥타이를 만져 보며 좋아했습니다.

《다음번엔 내 차례야.》경철이도 관옥이에게 지지 않으려 했어요.

이래서 룡히의 옷은 반 동무들의 어머니가 차례차례로 빨아 준답니다.

산수에 늘 5점을 받는 철환이는 룡히를 애써 도왔습니다.

《암만 해도 모르겠는걸 어쩌니.》

처음 며칠 동안 룡히는 실증까지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환이는

《나도 처음은 그랬어, 공부할 때 정신을 모으지 않아 그래.》 이렇게 말해 주며 힘을 내게했습니다.

그리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다가 땅에 펴 놓고 나무'가지로 글을 쓰면서 공부한 이야기며 행군할 때 앞에서 걷는 아저씨의 배낭 뒤'등에 큼직한 글을 써 붙인 것을 보며 구구를 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진 내가 공부에 게으르면 이 이야기를 하시며 꾸중하신단다》

철환이는 여러 가지로 애써 룡히의 산수 공부를 도왔습니다.

한번은 룡히가 앓아서 학교에 못 나왔습니다. 철환이는 룡히의 빈 자리를 보며 온 종일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날 밤 철환이는 늦게까지 딴 종이에 그날 배운 과목마다 다 썼습니다. 못 배운 학습장을 정리하느라고 제일 뒤떨어진 산수 공부를 못할 룡히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느 때보다 아침 일찍 룡히네 집으로 간 철환이는 룡히의 학습장에 어제밤 쓴 것을 붙여 주고 배우지 못한 산수 문제를 풀며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이리하여 룡히의 산수 성적은 점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동무들 틈에 잘 어울리지 않던 룡히는 활기를 띠였습니다.

몇달 후 구역 인민 위원회 교육부 선생님들이 갑자기 나오셔서 산수 시험을 쳤을 때입니다.

룡히와 함께 수현이네 반 동무들은 모두 최우등을 했어요.

수현이네 반 동무들의 아름다운 동지애는 학교의 자랑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분단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붉은 넥타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수현이네 반 동무들의 어머니들도 오셨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룡히를 도와 최우등의 성적으로 이끈 수현이네 반 동무들의 아름다운 동지애를 본 받아 서로 돕고 배우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모임을 끝내면서 지도원 선생님과 어머니들은 수현이네 반 동무들에게 새로 만든 붉은 넥타이를 매여 주셨습니다.

룡히는 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를 만져보며 소년단원의 끝없는 자랑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룡히는 반 동무들과 함께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학교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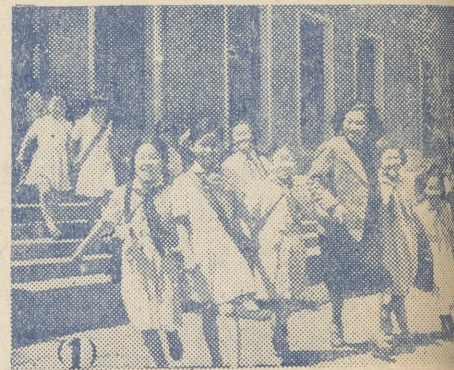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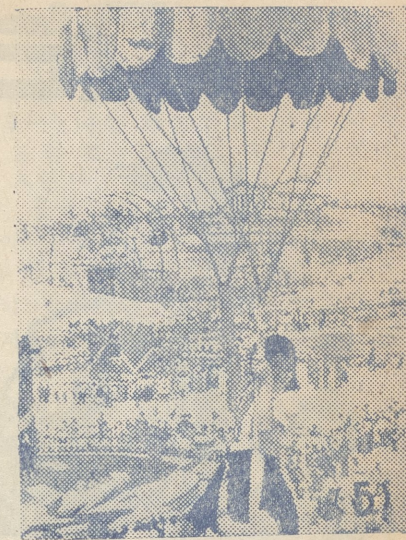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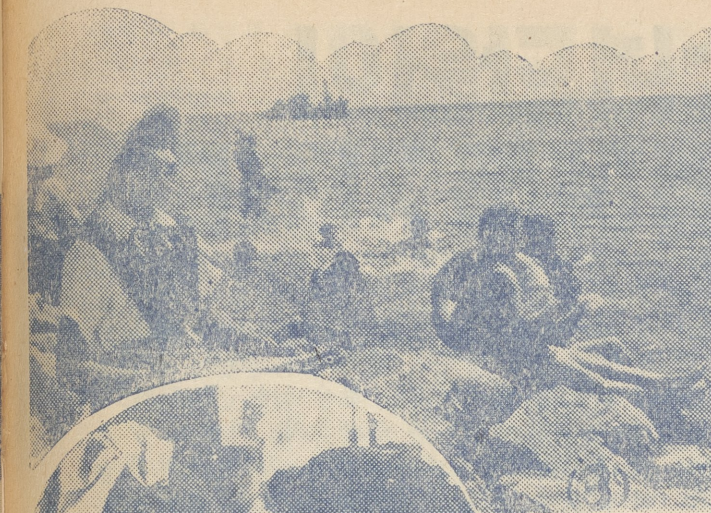
# 사회주의 조국은 참 좋다

소년단원 동무들! 사회주의 조국에 태여난 우리들은 참말 행복해요.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이 없이 누구나가 다 무료로 공부를 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에 벌써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였고 1958년에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지금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50만의 학생들이 37 개의 대학을 비롯한 8,000여개의 각종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는 1961~1962 학년도부터는 또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게 된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해마다 동해 바다'가 송후 야영소를 비롯하여 조국의 명승고적지에 설치된 야영소들에서 여름 방학의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소년 궁전, 아동 백화점, 아동 공원들이 해마다 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이것은 조선 인민을 행복에로 이끄는 조선 로동당과 우리의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① 이조국은 어린들에게 해마다 교복과 외투를 내준다.

② 조국 앞날의 [illegible] 모 있는 일[illegible] 으로 지식과[illegible] 능을 키워 [illegible] 간다.

③ 해마다 여름철이면 조국의 산과 바다, 명승 고적들에서 야영 생활을 즐긴다(송후 야영소에서)

④ 일본에서 고생하던 동무들도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공부 하고 있다(일본에서 돌아와 평양 선교 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무들)

⑤ 조국은 어린이들에게 소년 궁전, 아동공원 등 즐거운 놀음터를 만들어 주었다(청년 공원 코끼리탑에서 락하산을 타고 있는 동무들)

##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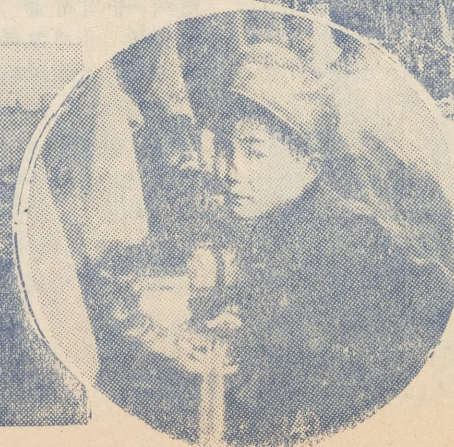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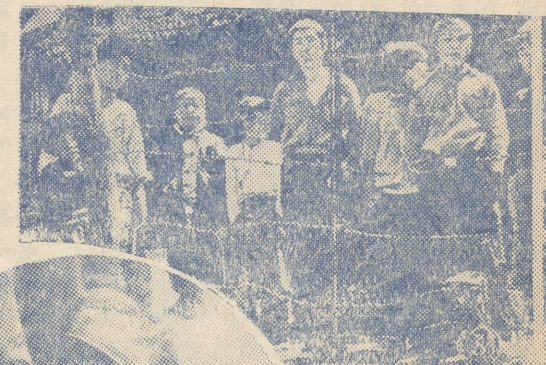
# 이 불행은 가셔져야 한[illegible]

① 남조선 어린이들은 이처럼 거리에서 빌어 먹으며 다닌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반부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

굶주림과 헐벗음에 시달려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반부에는 660만이 넘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일터와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수백만의 량식 떨어진 농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을 넘는 고아들이 깡통을 들고 거리를 헤매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들이 44만 6천 여명에 달하며 53만 3천 여명의 아동들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미제 승냥이 무리들과 괴뢰 도당은 남조선 어린이들을 어린 노예로 머나먼 남미주 부라질, 파라과이의 농장주 놈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 불행은 미제가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먹을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들

③ 병에 걸려도 치료할 길 없어 이처럼 전염병 수용소에 갇히여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④ 학교에는 갈 념도 못하고 미국 놈들의 구두닦기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들

# 그는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켰다

글 최죽산 그림 최종순

나어린 애국자 한 영국 동무는 영예로운 조선 소년단원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목숨으로 조국을 지켜 싸운 어린 애국자입니다. 다음에 한 영국 동무의 투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

1950년 10월 3일. 미국놈들과 국군놈들이 영국의 마을인 고성군 서면 순학리 일대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련달아 나는 총 소리와 부락 인민들의 아우성 소리, 그렇게 사랑하던 학교와 아늑한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바라보는 영국의 가슴은 메여지는 것만 같았고 증오의 불'길이 확확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두 주먹을 불끈 쥔 영국은 어떻게서든지 원쑤놈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아동 혁명단원들의 슬기로운 혁명 정신을 모범 받은 소년단원이다. 그리고 단위원장이 아닌가, 나는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뭐라고 맹세하였던가)

그날 저녁 영국은 례범, 동식, 춘균, 유현과 함께 남강 기슭에 모여 《소년 빨찌산》을 조직하기로 의논을 지었습니다.

《소년 빨찌산》의 활동은 시작되였습니다. 무기를 훔쳐 빨찌산에 보내자고 의논된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영국이와 아이들은 어둠을 타서 마을 복판에 있는 무기 창고로 배밀이질 하며 다가 갔으나 낮에 보아 두었던 구멍은 쇠부치로 막아 있어 첫 계획은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첫 일에서 실패한 영국이와 동무들의 마음은 몹시 쓸쓸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락심하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적들의 움직임, 무력 배치 정형, 후방 부대와의 련계를 알아 내는 일이였습니다.

어느날 영국이가 놈들의 강압에 못'이겨 경찰대 본부에까지 장작을 한짐 지고 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첫발을 들여 놓았을 때 영국은 징글 맞은 웃음 소리에 섞여 전화 신호종이 울리는 소리에 귀를 솔깃하였습니다. 치안대장놈이 헌병대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헌병대 올습니까? 네, 네, 이번 작전에 우리도 함께 참가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유점사의 길 안내는 념려 마십시요, 손'금보듯 하지요. …》 담'벽에 기대여 섰던 영국은 그만 오싹 소름이 끼치며 눈 앞이 아찔했습니다. (유점사! 여기에 빨찌산 본부가 있는 곳이 아닌가 개들이 분명히 냄새를 맡았구나 이 일을 어쩌나) 황급히 아이들에게로 뛰여 온 영국은 유점사로 떠나기로 의논 짓고 땅거미 질을 무렵에 유점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며 살이 찢기우는 것도 모르고 산'발을 타고 넘었습니다. 동이 훤히 틀 무렵에 아이들은 빨찌산 정찰병을 만났습니다. 영국은 오늘까지 알아 낸 적정을 기입한 략도를 내 드렸습니다. 그날 영국은 아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 오면서 룽선을 뻗어 나간 전화선들을 돌맹이로 모조리 끊어 버렸습니다. 마을에는 새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빨찌산 토벌을 떠난 놈들이 방어사 고개에서 전부 몰살을 당했대, 전화선마저 끊어져 독안에 든 쥐였대.》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이와 아이들은 서로 기뻐하며 부둥켜 안고 빙빙 돌아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부터 놈들은 헛총질하며 마을을 발깍 뒤지며 제놈들 생각에 의심스럽다는 사람은 아이건 어른이건 모조리 잡아 가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어제 저녁 유점사 빨찌산에 적정을 련락하려 갔다가 새벽에 돌아 온 영국이도 있었습니다.

놈들의 고문에 끌려 나갔던 사람은 모두 반죽음이 되여 들어 오군하였습니다. 영국이도 고문대에 끌려 나갔습니다. 놈들은 어린 소년의 등곬을 사정 없이 장작개비로 후려 갈겼고 손톱 눈을 참대 바늘로 쑤시였습니다.

하루에 몇차례씩 겪은 모진 고문에도 영국은 꿋꿋이 견디여 냈습니다. 《네가 빨찌산에 련락했지. 전화선도 네가 끊고. 응 마을에 어떤 비밀 조직이 있느냐, 너 혼자 뿐이 아니지, 대라 몇놈이야.》

《내게서 비밀을 알아 내려는 네놈들이 어리석다. 이 승냥이놈들아, 나 혼자 뿐이다.》 영국은 찌그러진 얼굴이 꼭 승냥이 같이 생긴 《사찰과장》놈을 쏘아 보며 웨치듯 힘 있게 대답했습니다. 놈들은 영국에게 매일 비밀을 대라고 때리고 쑤셔대군 하였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까무라치며 정신을 잃군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영국은(입을 열어서는 안된다. 내가 비록 죽드라도) 하고 더욱 입을 굳게 다물군 하였습니다. 악이 치바친 《사찰 과장》놈은 벌겋게 열이 오른 눈깔을 부라리며 《어디 네놈이 아가리를 얼마나 다물고 있나 보자.》하며 시뻘겋게 단 쇠끄챙이를 넝큼 손에 들고 굶은 승냥이와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영국은 닥쳐 올 고통을 견디어 내기 위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에 지지워 쪼그라 들어 예쁜 얼굴은 옛모습을 찾아 볼길이 없었습니다.

련'이어 들이대는 고문으로하여 영국의 손'등은 텅텅부어 올랐고 손'가락 하나도 마음 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흔들뿐이였습니다.

영국에게서 아무 것도 알아 내지 못한 놈들은 고문을 단념하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촌 누이동생 영순이와 어느날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오늘 30일간 감방에서 투쟁한 총화를 지어야하겠다. 승리했다는 기쁨으로 하여 노래라도 부르고 싶구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나는 행복하다. 나를 이처럼 길러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장군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정한 나의 동무들아 공부 잘하며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 다오. 미국 승냥이 놈들은 열 다섯살 나는 나에게 졌다…》 이것은 영국이가 사형장으로 나가기 전날 밤에 써 두었다가 면회하려 온 영순에게 몰래 내준 피의 일기장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날 저녁 사형장으로 끌리여 나가는 영국이의 손'바닥은 쇠줄로 꿰여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영국이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초생달이 그의 해쓱해진 얼굴을 비쳐 주었습니다. 원쑤와 더 싸우지 못한다는 것은 분한 일이였으나 조국을 지켜 원쑤를 반대하는 싸움에 떳떳하게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입'가에는 끝없는 삶의 보람이 어리였습니다. 《이 승냥이놈들아 네놈들은 나를 죽이나 조선 사람을 다는 죽이지 못한다.》 총 소리가 났습니다. 비칠거리다 일어선 영국은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습니다. 또 다시 총 소리가 났습니다. 영국이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세찬 바람도 애석해하는 듯 잦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생달도 슬퍼서인지 하늘 높이 떠선 구름 속에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 소년단원 시절이 잊혀지지 않아요

—강원도 문천군 해방 중학교단 제 5분단에서—

소년단 창립 열네돐을 앞둔 어느날 이곳 분단 동무들은 아담하게 꾸린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소년단원 출신이며 문평 제련소 모범 로동자인 전 행림 언니를 빙 둘러 싸고 모여 앉았습니다.

한가운데 앉은 언니는 기뻐하시며 분단 동무들을 휘 둘러 보시다 《참 동무들과 같이 앉으니 붉은 넥타이를 팔랑이던 소년단원 시절이 생각 나는군요.》하며 1반 반장인 김 정자의 넥타이를 만져보는 것이였습니다. 《야! 언니도 소년단 생활을 하시였대》 분단 동무들은 서로 소곤소곤 하더니 이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안 례덕이가 일어섰습니다.

《언니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 할가요?》

옛날을 더듬는듯 잠시 말이 없던 언니가 이윽고 입을 열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때 학교에서는 우리 분단을 〈화목한 분단〉,〈모범 분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단 동무들이 정말 한덩어리로 뭉쳐 무슨 일이건 분단에서 하기로 한 일은 서로서로 도우며 어김없이 해 나가군 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각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를 열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단에선 전람회에 솜씨 있게 만든 많은 것을 낼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물리 크루쇼크원인 나와 혜숙 그리고 길남 셋이선 〈당권 변압기〉를 만들기로 되였습니다. 며칠은 힘들지 않게 철심도 만들고 납땜질도 하였지요. 그러나 기술이 부족해서 두번이나 실패하자 길남이와 혜숙이는 인젠 날, 자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쉽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모형 함선이나 만들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생각 하였습니다. 조직 앞에서 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이제 와서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분단에 뒤떨어질 것은 물론 소년단원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 나는 기계 공장 아저씨들을 찾아 갔습니다. 〈행림이가 그걸 때 해내겠니 우리들이 만들어 줄테니 만들던 것이나 여기에 두고 가지〉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저씨들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지 행림이 말이 옳다. 어렸을 적부터 무엇이든 제손으로 하려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라고 하시며 코일과 납, 여러 가지 절연체들을 주며 기술도 배워주는 것이였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땅거미가 운동장에 기여드는 것도 모르고 코일을 감으며 땜질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은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일이 부족되는 것이였습니다. 길남이네 집엔 피복을 씌우지 않은 가는 구리줄이 있었습니다. 길남이와 나는 꼬박 밤을 밝혀 가며 물레바퀴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가지고 200m 남짓한 가는 구리줄에 명주실을 씌웠습니다. 드디여 변압기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튿날 우리가 만든 〈당권 변압기〉를 본 선생님들과 다른 분단 동무들은 연신 감탄을 하였습니다.

우리 분단은 전람회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때 우리 분단 동무들이 기뻐하던 일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집단의 영예를 위해 힘을 한데 모아 일해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큰 것이예요.

그 후 우리가 만든 변압기는 학교 꼬마 방송실에서 방송 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였답니다.》

김 길순이와 장 숙자는 《언니가 소년단원 시절에 제일 기뻤을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나는 소년단 생활의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보내였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뻤을 때는 내가 당의 후비대인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였을 때였습니다. 그처럼 바라고 원하던 민청원이 되여 푸른 맹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푸른 맹증을 받은 날 밤 나는 6년 동안 매고 다니던 붉은 넥타이를 목에서 풀었습니다. 다시 돌아 오지 않을 소년단 시절을 생각하니 마음은 어딘가 섭섭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년단원 시절을 돌이켜 보며 부끄러운 일과 보람찬 나날들에 대하여 깊이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면 나를 민청원으로 키워 주고 또 당원으로 키워준 소년단이야 말로 참으로 나의 첫 훌륭한 학교였습니다.》

언니를 말끄럼히 바라보던 진 영숙이와 리 용복은 《우리도 언제 언니처럼 돼볼가》라고 부러운듯 말하였습니다.

언니는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부러워 할건 없습니다. 나도 소년단원 시절엔 영숙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도 언제 민청원이 되고 그 다음엔 로동당원까지 되겠나.〉하고 말이지요. 그 후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나와 기대를 잡은 첫날부터 모든 일에 앞장 서 나가는 당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2년 후에는 6급공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삭 경기 대회에까지 참가하게 되였지요. 그리하여 모든 일에서 막힘없이 척척 해나가게 되였지요.

아연 직장 조업식을 하든 그날이 눈 앞에 선합니다. 나는 당과 정부의 요인들과 함께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공장을 돌아볼 때 더 없이 기뻤고 행복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니의 기대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나를 이처럼 길러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충직한 붉은 전사가 될것을 다시 한 번 마음다지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8. 15 해방 15주년을 맞으며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을 받들고 제련 실수률을 95% 이상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공장 굴뚝으로 나가는 수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것으로서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동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이 되며 조직에서 하자고 결정지은 일은 어김 없이 해내며 규률 있는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된다는 것은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고 또 장차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원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난 동무들은 흥분된 감격을 안고 언니와 함께 언니가 일하는 공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불어오는 '바다'바람에 넥타이는 자랑스럽게 나붓겼습니다. (본사 기자)

# 미제는 우리의 간악한 원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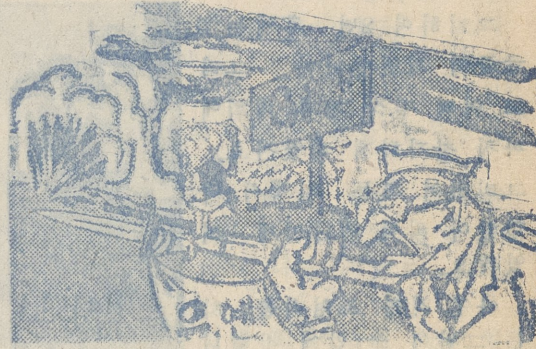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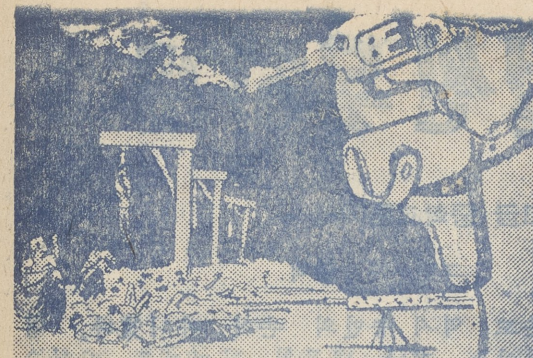
그림 허 능택

(1) 미제는 근 100년 전부터 금은 보화로 가득찬 우리 나라를 탐내여 왔다. 놈들은 1866년 8월 해적선 《샤만호》를 몰고 대동강에 기여 들어 평양 부근을 정찰하며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강도 행위를 하였다. 이에 격분한 인민들은 《샤만호》를 불살라 버렸다. 그 후에도 놈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에 침입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웅적 우리 인민들은 한결같이 일어나 놈들을 물리쳤다.

(2) 왜놈들이 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후 미제는 1945년 9월 8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남조선에 상륙했다. 놈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꿈꾸어 오던 대로 우리 나라 남쪽 땅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기에 날뛰였다. 그리하여 상륙한 첫날부터 남조선에 군정을 실시하고 인민의 뜻으로 세워진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남조선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3) 간악한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 막고 남조선을 자기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인민들을 총칼로 위협해 가지고 망국 단독 선거를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오래'동안 제놈들의 빵부스러기로 길러 낸 개 리 승만을 두목으로 하고 조선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긁어 모아 괴뢰 정부를 꾸며 냈다.

(4) 미제는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과 쏘련을 침략 하려고 꿈꾸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남조선에 괴뢰 정부를 꾸며낸 다음 1948년 8월 24일 《한미 잠정적 군사 협정》을 뭇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기지로 만드는 일에 한층 더 눈이 뒤집혀 돌아 갔다. 놈들은 농민들로부터 10만 여 정보의 땅을 빼앗아내서 가는 곳마다에 군사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 시설들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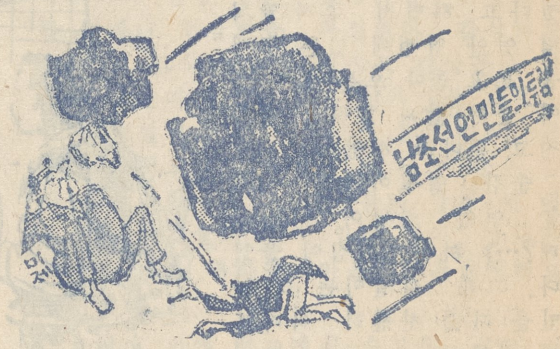
(5) 뒤'이어 미제는 1948년 12월 10일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비롯한 각종 략탈적 《조약》 및 《협정》을 무었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지하 자원을 제 마음 대로 빼앗아 갔고 제놈들의 물건을 비싼 값으로 팔아 먹기 위해 남조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부터 배급에 이르기까지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 쥐고 남조선의 산업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1958년 11월 초까지만 해도 남조선 전체 공업의 75%가 문을 닫았다.

(6) 공화국 북반부마저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꿈꾸어 오던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마침내 리 승만 도당을 시켜 전쟁의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제놈들과 16 개의 앞잡이 나라 군대들까지 끌어다 북반부를 쳐들어 왔다.



(7) 전쟁을 일군 미제는 우리의 도시와 농촌, 공장, 학교, 병원 등 닥치는 대로 폭격하여 귀중한 재물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무참히 죽였다.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든 미제는 수십만의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황해도에서만도 10만 여명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남조선에서도 100만 여명의 인민을 학살했다.

(8)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쉽사리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선 로동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원쑤 격멸에 한사람 처럼 일떠선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놈들의 꿈은 산산히 깨여졌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7일 놈들은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9) 미제는 정전 협정에 조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날뛰였다. 놈들은 원자 및 유도 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놈들은 우리 인민들이 제나라 땅에서 서로 자유로히 왔다 갔다하게 하며 편지 거래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10) 살인귀 미제는 지금 남조선 인민들을 제멋대로 쏘아 죽이고, 자동차로 깔아 죽이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누나들의 머리를 깎고 옷을 벗기고 뼁기칠을 하는 등 갖은 만행을 다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미제 침략군놈들은 1천 여명의 남조선 인민들을 자동차로 깔아 죽였다.

(11) 미제의 략탈로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남조선에서 물건 값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비하여 3만 9천 700여배로 뛰여 올랐다. 지금 남조선에는 660여 만의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300~400만의 량식 떨어진 농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100만을 넘는 고아들이 깡통을 들고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이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 가고 있다.

(12) 남조선 인민들은 이 인간 생지옥에서 더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용감히 항쟁에 일떠섰다. 미제놈들은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에게 땅크까지 동원하여 학살을 감행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의 앞잡이 리 승만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냈다. 리 승만 역도가 꺼꾸러지자 미제는 허정을 앞잡이로 내놓았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허정 정권은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계속 항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이 간악한 원쑤 미제를 반드시 물러 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 원쑤들이 얼씬 못하게

—황해남도 청단군 청단 고급 중학교단에서—

글 최 옥선　　　그림 허 능택

6월 25일—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삼켜보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을 맞으면서 이 학교에서는 단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마을을 모조리 파괴하고 인민들을 수 없이 학살한 놈들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지금 눈부시게 건설되는 북반부의 건설을 해치려고 기여드는 원쑤들이 얼씬 못하도록 경각성을 높이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래 지난날 간첩놈을 잡은 이 학교 리영철 동무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학교에서 항상 경각성을 높일 데 대한 이야기를 듣군 하던 영철이는 협동 조합 려인숙을 하고 있는 자기 집 식구들에게도 자주 원쑤놈들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항상 잘 살펴 왔다.

그러던 어느날 영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밥을 먹고 있는데 구럭을 질머진 농민 한 사람이 려인숙을 찾아 왔다. 그는 려인숙에서 하루'밤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혼자'말처럼 연안 염전에 있는 동생을 보고 돌아 오는 길에 장에 들려 닭과 국자를 사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순간 영철이에게는 《오늘 연안 장날이 아닐텐데?…》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 영철이는 그 농민을 다시 찬찬히 바라보게 되였다. 그리고 보니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그 농민의 허줄한 옷차림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 농민의 차림이 아니였다. 매끈하고 고운 손도 역시 농민의 손이 아니였다. 영철이는 전날 내무원 아저씨를 만났을 때 농민으로 가장한 간첩놈이 청단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잘 살피라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 영철이는 밥을 먹는척 하면서 그 농민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그 농민은 어머니더러 밥을 달래서 허겁지겁 먹더니 방안으로 들어 오는 것이였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뵈이지 않으려고 바람'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털석 드러눕는 것이였다.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한 영철이는 밥먹든 것을 걷어 치우고 어머니더러 그날 숙박 등록은 자기가 하겠노라고 하였다. 영철이는 다른 날과 달리 매 손님들의 공민증을 전부 모아다 놓고 숙박 등록을 하였다. 영철이는 집 식구들에게 그 농민을 잘 살피라고 하고는 공민증을 가지고 내무원 아저씨를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 내무원 아저씨는 곧

그 농민을 데려 갔다. 알고 보니 그놈은 우리 나라의 건설장과 주요 기관들을 조사해 가지고 청단 해안으로 빠져 달아나려던 간첩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 영철이는 청단군 내무서에서 표창장과 많은 상품을 받았던 것이다.

영철이는 모임에서 자기가 잡은 그 간첩놈은 미국놈들에게서 2년씩이나 간첩훈련을 받고 공화국 북반부의 건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들어 온 놈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원쑤 놈들에 대한 경각성이 높은 것은 모임에서 이야기한 영철이 뿐만은 아니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사는 청단마을에 처음 가보는 사람은 누구나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이 높은 이곳 소년단원들을 기특하다고 칭찬한다. 특히 청단 고급중학교 소년단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공민증을 못가지고 장보려 왔던 사람, 제대되여 마을에 오던 아저씨들, 나들이 오던 사람들이 거리를 빙빙 돌다가는 가끔 이곳 청단 고중 소년단원들의 살핌을 받는다. 또한 어디서 왔느냐고 까근까근 물어 보기도 한다. 성미 급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한다고 성을 내다가도 나중엔 《거참 똑똑한 아이들이군》 하고 감탄하고 돌아 간다. 얼마 전에는 길'가에서 자기 부대의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인민군대 아저씨가 학교에 갔다 오는 1분단유 영하를 만나 청단 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 보았다.

영하는 순간 《내가 어린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묻는 모양이지.》 하고 수상하게 생각했다. 영하는 잠시 동안 입을 꼭 다물고 말이 없더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서 알려줄테니 학교에 가자고 끌었다. 인민 군대 아저씨는 학교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나 끝끝내 가자고 하는 것이였다. 영하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그럼 네 소원 대로 학교에 가자.》라고 하시며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 자기 신분을 이야기 하고 경각성 높은 영하를 칭찬하였던 것이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사는 청단이라는 고장은 조국 해방 전쟁 때 우리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 의해 미제와 리승만 도배의 발'굽 밑에서 해방된 곳으로서 지금도 미국 놈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 땅을 불과 몇십리 밖에 두고 있으며 서해가 빤히 바라보이는 곳이다. 나날이 넉넉해지는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해치려는 원쑤놈들은 해안선을 타고 이곳을 노려 드나들려고 한다. 그러나 6.25 전까지만 해도 리 승만의 통치하에서 굶주리며 학교도 못다니며 고통을 받던 이곳 소년단원들은 공화국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면서 원쑤놈들을 누구보다 증오하며 경각성을 항상 높이고 있다. 자주 내무원 아저씨들을 모셔다가 간첩놈들의 교활성, 가장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을 가지군 한다. 뿐만 아니라 간첩을 직접 잡은 마을 사람들을 모셔다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리고 간첩 잡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영화나 전람회를 빠짐없이 감상하도록 하며 감상 모임을 가지고 감상문을 벽보에 싣는다. 간첩 잡은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소설이나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읽고 독서모임도 가끔 가진다. 이들은 감상 모임, 이야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단 반을 통하여 마을 어른들에게도 선전한다.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수직을 서고 서로 교대할 때는 사람들의 말소리 개짖는 소리 등에 대해서까지 서로 빈틈없이 이야기 해주고 교대한다.

이번 6, 25를 맞으며 가진 모임에서 이들은 원쑤들이 얼씬 못하게 더욱 경각성을 높이자고 굳게 결심하였다.

글 차 용 구　　그림 최 종 순

1961년 6월 6일의 명절을 사흘 앞둔 토요일 저녁에 집에 와 보니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나보고 싶다던 룡강에 있는 사촌 누나 순희가 찾아 온 것입니다.

나와 동갑인 순희는 날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래일 소년 궁전 구경을 가자!》

나의 누나 순희는 분단 위원입니다.

순희네 학교에서는 이번 소년단 창립 기념일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진답니다. 그 가운데는 소년 궁전에 대한 이야기 모임도 있는데 그것을 순희가 맡았다나요.

순희는 막 뽐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니? 우리 분단의〈전권 위원〉으로 나를 파견했다는걸 말이야. 그러니 너도 수도 소년단원답게 나를 안내해야 돼!》

전날 같으면 툭 쏴 주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나도 래일 소년 궁전에 가 보려던 참이라 길'동무 생긴 것이 반가워 그만 악수까지 했습니다. 참 못갈 사정이 있는듯이 끄다가 순희가 너무 졸라서 같이 간다고해야 위신이 있을 건데 나도 참 덤비는 아인가 봅니다.

다음날 대동문 영화관 앞에서 빠스를 내린 순희와 나는 장대'재 우에 덩그렇게 앉아 있는 소년 궁전 동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대동문 영화관에서 맞다 뵈는 이 현관까지에는 폭이 30 메터나 되는 대통로가 엇비슷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는 60 메터의 길이를 가진 계단식 분수가 언제나 물안개를 피워 오색 령롱한 무지개를 비끼게 합니다.

지금 현관 앞에서 모두가 붉은 넥타이를 바로 매고 소년단 경례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이 서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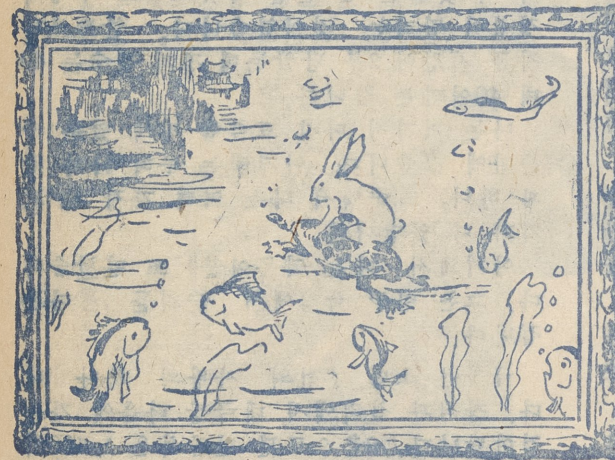
자존심이 센 순희는 이 룡궁 같은 궁전을 첨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체 하려 했지만 그 빛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2만 5천 평방메터를 넘는 넓은 터전 우에 11층의 탑을 가진 이 웅장한 소년 궁전은 구름 우에 솟은 탑끝까지하면 높이가 50 메터나 된답니다. 그러니 이 굉장한 건물을 보면 그 누군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글쎄 나는 물리 크루쇼크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집처럼 드나들어도 올때마다 황홀해서 한참씩 쳐다보며 감탄하군 한다니까요.

현관을 들어서면 대현관 홀인데 마루는 여러 가지 빛갈과 꽃무늬로 장식된 천연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녀전권 위원》을 안내하면서 궁전 구경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순희와 나는 첫 출발점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잘 가공되여 마치 룡궁의 수정 기둥 같은 인조 대리석 기둥에 기대서서 말입니다.

우리가 대 홀에 들어 섰을 때는 바로 10분 전 열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바빠 맞아 옛'이야기실부터 구경하자고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순희는 천장에 드리운 어마어마하게 큰 샨데리야의 전등수만 세고 있는게 아닙니까. 자기는 위임맡은 일을 그렇게 되는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나보고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고 딱 잡아 떼지 않아요.

열시부터 옛'이야기실에서 《토끼전》에 대한 옛'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나는 《토끼전》에 나오는 토끼와 자라, 룡왕 가운데서 누굴 동정해야 하느냐를 알아 오라는 분단의 위임을 받았거든요.

10시 3분 전에 나는 순희를 거기에 남겨둔채 옛'이야기실로 달려 갔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씽하니 올라 가는 승강기를 타는 것도 잊어 먹고 말입니다.

나도 옛'이야기실엔 처음 들어와 봅니다. 글쎄 벌써 반년이나 이 궁전에 다녀도 가보지 못한 방이 더 많아요. 그만큼 넓다니까요. 옛'이야기실에는 사방 담'벽에 높이 2 메터, 폭이 5.5 메터나 되는 굉장히 큰 그림들이 여려폭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토끼전, 흥부전, 장화 홍련전, 심청전, 혹뗀 이야기, 콩쥐 팥쥐, 온달전, 범의 꾸중과 그리고 재미 있는 동화들의 내용을 설명한 그림이였습니다.

이야기'군이 지금 룡왕이 산호 궁전에서 죽을 병을 만나 앓고 있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끼 화상을 그린 그림이 든 보'짐을 멘 자라가 토끼를 만나 반가워 벙거지를 벗고 인사하는 장면이며, 각종 고기떼 헤염치는 물 속을 자라 등에 타고 룡궁으로 가는 토끼 그림이며 만수 진찬을 차려 놓은 룡궁 연회에서 토끼가 올방자를 틀고 앉아 바위틈에 감춰둔 간을 가져 온다고 말하는 광경과 마지막에 육지로 돌아 온 토끼가 숫한 짐승들과 함께 자라를 꾸짖는 여러 가지 벽그림을 보면서 재미 있게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누구를 동정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흥부전》 이야기가 있다는데 난 그걸 들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순희를 찾아내서 그 《전권 위원》을 안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순희는 각종 자동화된 기계 모형과 실지 생산까지 하게되여 있는 교통 운수, 선박, 해양, 항공, 기계, 공작 등 크루쇼크실이 있는 1층에도 없었습니다. 라지오, 공예, 미술, 수예 크루쇼크실이 있는 2층에도 보이지 않구요. 그래서 나는 농촌에서 온 순희이니만큼 축산, 동물, 식료, 농산, 곤충 등 생물학 부문 크루쇼크실이 있

고 또 흥미를 끌만한 선진 농기계도 있고 곤충 표본 만드는 법도 전시되여 있는 3층에는 꼭 있을 줄 믿었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순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제는 막 다리가 다 아픕니다. 아무튼 90 여개나 되는 크루쇼크실을 다 돌았으니까요. 뭐 크루쇼크실만이 아니지요. 차근차근 표쪽을 보고 다녔으면 일없을 것인데 순희를 빨리 찾겠다고 덤비는 통에 실수를 많이 했답니다.

글쎄 한문을 척 여니 거기는 귀빈실인데 지금 외국 손님이 우리 중앙 민청 아저씨들과 담화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난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열른 문을 닫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송실에도 들어 갔다가 방송원 누나의 눈총을 맞고 계면쩍게 나오기도 했고 록음실에 잘못 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문뜩 오늘이 6월 4일이라는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옳다》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4층에 있는 500 평방메터나 되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로 달려 갔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숫한 아이들이 보천보 전투에 참가했던 혁명가 아저씨들 한테서 그 때의 감격스러운 보천보 전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 우리 분단 귀동이 한테 어제 우리 집에 온 처녀 손님을 못 봤는가고 슬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있었는데 어데론가 나갔다는 겁니다.

4층에는 대중 과학실, 정치 교양실과 민청실, 소년단실, 소년단 까비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또 다시 11층 탑의 건물 안에 있는 방들——인공 위성관, 소년 작품 전람관, 농산물관, 국제 친선관 등에도 가 보았습니다.

나는 그만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송실에 가서 매 방 마다에 통하는 마이크에다 대고

《룡강에서 구경온 순희 동무는 4층 휴계실까지 와 주십시오… 그리고 소년 궁전 안에 계시는 여러 동무들! 얼굴은 둥굴 납작하고 키는 호리호리하고 갓'대림 교복을 입었고 연분홍 리봉을 달고 〈항상 준비!〉라고 쓴 빨간 수첩을 든 열 세살 난 처녀를 만나거들랑 4층 휴계실에서 오빠가 찾는다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광고할가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우선 수도 소년단원인 내가 누나 하나 돌보지 못했다고 핀잔을 받을 것 같고 또 자존심이 강한 순희가 골을 낼 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찾기로 작정하고 이번엔 승강기를 타고 맨 밑층에 있는 체육관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기계 체조, 예술 체조, 권투, 레스링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체육 크루쇼크실이 있고 또 500석의 관람석을 가진 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에서는 쏘련 삐오네르 팀과 조선 소년단 팀의 롱구 시합이 한창이였습니다. 나는 한 절반 일어서서 막 소리지르며 응원에 정신 팔린 우리반 체육 써클 책임자의 옆구리를 쿡 질렀습니다. 글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않으니까요. 옆구리를 질린 그는 그제야 홀끔 돌아 보더니 씩 웃고는 한 손을 내젓고 또 구경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지금 시간이 2분 남았는데 경기 점수는 40 대 40이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다시 뾰족탑 밑에 있는 수족관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강과 바다, 호수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다 있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귀동이를 또 만났습니다. 그는 방금 극장에서 순희를 봤다는 겁니다.

극장은 소년 궁전의 자랑의 하나입니다. 장식과 설비에서 대극장 다음에 가는 것이랍니다. 2층으로된 관람석은 1,500석이나 됩니다. 아무튼 모란봉 극장의 두배가 된다면 짐작이 갈겁니다.

이 극장에 가자면 소년 궁전의 남쪽 승인전 쪽으로 해서도 갈 수 있고 신년 축하 모임 대 홀을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신년 축하 모임 대홀은 2층까지 관통된 굉장히 높고 넓고 화려한 홀인데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설맞이 모임에 나도 수상님을 모시고 이 소년 궁전의 첫 신년 축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홀에는 화초실도 있고 조각품들도 있는데 어린이들 속에 계시는 수상님의 동상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홀에서 군중무용과 여러 가지 상봉 모임들을 가진답니다.

신년 축하 모임 대홀과 잇달려 있는 극장홀을 거쳐 극장에 들어 가니 작년 남조선에서 일어난 인민 항쟁 때 마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김 주열 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서울에서 맨주먹으로 땅크를 맞받아 나간 소년들의 영웅적 항쟁을 형상화한 아동극이 있다고 아이들이 막 쓸어 들고 있었습니다.

극장 무대는 최신 회전 무대이고 뒤'면에는 높이 2 메터 폭이 17.5 메터나 되는 굉장히 큰 벽화가 걸려 있는데 그것은 금강산 8선녀에 대한 그림입니다. 순희가 바로 이 그림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나는 서둘러가며 간이 매점이며 음악, 무용, 연극 크루쇼크실들을 찾아 봤으나 역시 순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족관이 있는 데로 오니 귀동이가 인제 방금 옥상으로 올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승강기를 타고 11층탑 맨 꼭대기에로 단숨에 올라 갔습니다.

장대'재도 평양에서 그중 높은 곳인데 거기서 50 메터 더 높은 이 옥상에서는 온 평양이 샅샅이 다 보입니다.

모란봉도 청년 공원도 손'금처럼 보이고 대동강 건너 쏘련 전람관 건물도 눈아래 뵙니다.

순희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인제야 겨우 순희하고 하던 〈순박꼭질〉이 끝났나봅니다. 그는 지금 눈을 가늘게 뜨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룡강의 오석산을 찾아 보는 것이겠지요.

순희는 나를 보자 안내를 잘못했다고 핀잔줄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얘야 평양이 얼마나 굉장하니, 말할 수 조차 없구나, 이 웅장한 수도 모습이 그대로 우리 나라 발전의 도표일거야, 그러니 우리도 이 나라 래일의 기둥답게 자라야겠어.》

순희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 뒀던 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탑 꼭대기를 오래오래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커다란 우리 소년단 휘장이 있습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홰'불은 이 탑에서 온 평양이 다 보이듯이 모든 곳에서 그것이 뚜렷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휘장 가운데 크게 쓴 네 글'자 《항상 준비!》도.

(끝)

☆

☆ ☆

ㄷ, 소년단원은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우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

ㄹ, 소년단원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항상 명랑하고 용감하여야 한다.

ㅁ, 소년단원은 동무를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례절에 밝고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ㅂ, 소년단원은 항상 정직하며,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을 버려야 한다.

ㅅ, 소년단원은 자기 몸을 깨끗이 거두며, 학교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ㅇ, 소년단원은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소년단 회의에서 하기로 한 일과 맡은 일을 어김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ㅈ, 소년단원은 항상 어린 소년들을 잘 가르치며, 그들의 입단 준비를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ㅊ, 소년단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온갖 원쑤들을 미워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5, 소년단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ㄱ, 소년단원은 소년단의 모든 사업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ㄴ, 소년단원은 단 위원, 분단 위원, 반장으로 선거 받을 수 있으며, 또 선거할 수 있다.

ㄷ, 소년단원은 동무들의 잘못에 대하여 어느 때나 타일러 줄 수 있다.

ㄹ, 소년단원은 소년단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반, 분단 위원회, 단 위원회, 소년단 출판물 그리고 민청 지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ㅁ, 소년단원은 자기 민청 가맹 보증에 대한 요구를 단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 제 4장 소년단 조직과 생활

6, 소년단 단 위원회는 단 총회(대표자회)에서, 분단 위원회는 분단 총회에서 각각 선거된다.

7, 소년단 조직에서의 일체 선거는 공개 거수로 한다.

8, 각급 소년단 단체 회의는 그 회의에 참가할 전원의 3분지 2 이상 참가로써 성립되며, 회의에서의 결정은 회의 참가자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9, 소년단의 기본 조직은 단이다.

단은 5명 이상의 소년단원이 있는 학교 및 학원 등에 조직된다.

소년단 야영소, 소년단 휴양소 및 기타에도 단을 조직 할 수 있다.

소년단원 15명 이상이 있는 단에는 1년을 기간으로 하는 5~25명으로 되는 단 위원회가 선거된다.

단 위원장은 단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원회는 단의 모든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단 위원회는 조선 로동당의 정책과 해당 민청 단체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단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의 실행을 제때에 총화하며 단 총회에서 토의 결정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분단과 반을 지도한다.

단 위원회는 단 기수, 단 벽보 주필을 임명한다.

단 위원회는 분단 번호를 결정하며, 분단에 분단 기'발을 수여한다.

소년단원 15명 미만되는 단에서는 단 총회에서 단 위원장, 단 기수, 단 벽보 주필을 선거한다.

소년단원 15명 미만되는 단의 단 위원장은 단 앞에 제기된 모든 사업을 단 기수, 단 벽보 주필을 비롯한 소년단 열성자들과 수시로 광범히 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총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된다.

소년단원이 조선 민주 청년 동맹에 가맹을 청원하였을 때에는 소년단 단위원회(단 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소년단 단에서는 단 총회)의 결정으로 보증인 1명을 대신하는 가맹 보증을 할 수 있다.

10, 단 밑에는 분단이 조직된다.

분단에는 1년을 기간으로 하는 3~7명으로 되는 분단 위원회가 선거된다.

분단 위원장은 분단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분단 총회는 월 1회 이상 소집된다. 분단 위원회는 소년들의 입단 준비를 도와주며 소년단원들에게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하며,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며, 소년단원들의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가맹을 준비시킨다.



분단 위원회는 분단 기수, 분단 벽보 주필들을 임명한다.

분단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반을 조직 할 수 있다.

반장은 반 모임에서 선출한다.

반은 분단 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반 모임을 조직하며, 반원들이 소년단 생활에 옳게 참가하도록 방조한다.

11, 소년단 단들은 시,(구역)군 소년단 련합 단체로, 시,(구역) 군 소년단 련합 단체들은 도(평양시, 개성시) 소년단 련합 단체로 련합된다.

각 도(평양시, 개성시) 소년단 련합 단체들은 조선 소년단으로 통일된다.

12, 소년단 각급 련합 단체들은 자기 사업을 토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년단 련합 단체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년단 각급 련합 단체 대회 대표는 단 총회에서 선거한다.

소년단 각급 련합 단체 대회시에는 대회의 대표들로서 대회 진행을 위한 소년단 련합 단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기수를 선거한다.

소년단 련합 단체 대회의 결정은 그 산하 소년단 단체들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3, 소년단 단체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소년단 각급 단체들은 해당 민청 단체의 지도하에 사업한다.

소년단 단체는 민청 위원회가 파견한 단 지도원, 분단 지도원의 지도 하에 사업하며 생활한다.

소년단 단 지도원은 분단 지도원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소년단 단 지도원, 분단 지도원은 선거받지 않고 단위원, 분단 위원으로 된다.

## 제 5장 표창과 책벌

14,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에게는 분단과 단 대렬 앞에서의 찬양, 단과 시,(구역) 군 소년단 련합 단체 기'발 앞에서의 사진 촬영, 민청 중앙 위원회 및 도 민청 위원회의 《영예의 등록》 표창을 한다.

소년단 사업에서 우수한 단에는 민청 중앙 위원회가 《모범 소년단 단체》의 칭호를 수여한다.

15, 소년단원이 규률을 잘 지키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소년단 조직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도록 그를 꾸준하게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단원이 자기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분단과 단 대렬 앞에서의 주의를 주며 단 총회(대표자회) 결정으로 출단까지 줄 수 있다.

출단은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서 비준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6장 조선 소년단의 구호와 상징

16, 조선 소년단의 구호는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이다.

조선 소년단의 구호를 받은 소년단원의 영예로운 대답은 《항상 준비!》이다.

17, 소년단 기'발은 소년단 구호와 소년단 휘장을 새긴 붉은 기'발이다.

소년단 기'발은 조선 소년단이 김 일성 원수님께서 조직 지도한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아 조선 로동당의 가리킴 대로 공산주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18,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는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단원의 기본 표식으로써 소년단 기'발의 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으며, 소년단원이 민청원을 거쳐 조선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최대의 희망을 표시 한 것이다.

19, 소년단원의 경례는 소년단원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할 결의를 다지며, 동무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단결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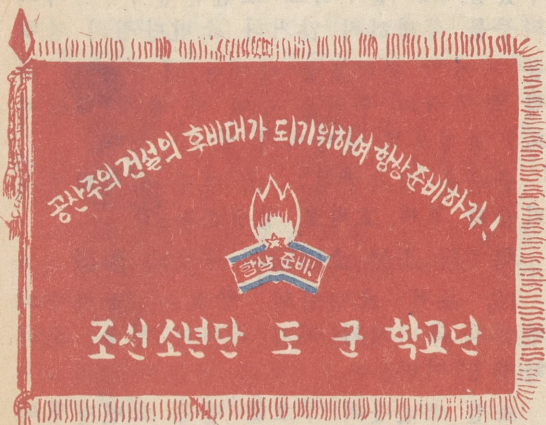
20, 조선 소년단의 일체 의식은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가 제정한다.

# 부록

## 《소년단 기'발》

소년단 기'발은 기'발 복판에 소년단 휘장을 새기며 금'빛 색으로 그 우쪽에 소년단 구호를 써 넣고 아래 쪽에 자기 단체의 이름을 써 넣는다.

조선 소년단 기'발은 가로 150cm, 세로 100cm이며 각 도 (평양시, 개성시) 소년단 련합 단체 기'발은 가로 140cm, 세로 95cm이며, 시,(구역) 군 소년단 련합 단체 기'발은 가로 130cm, 세로 85cm이다.

소년단 단 기'발은 가로 120cm, 세로 80cm이다.

분단 기'발은 가로 80cm, 세로 60cm이며 그 복판에 소년단 휘장을 새기고 아래 쪽에 자기 분단의 번호를 금'빛 색으로 써 넣는다.

##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의 규격은 10 대 6 비례의 삼각천으로 하되 저변은 110cm 또는 90cm, 높이는 37cm 또는 30cm로하며 넥타이를 매였을 때 긴 끝은 가슴뼈의 끝과 일치되도록 한다.

붉은 넥타이를 맬 때에는 둔각을 척추골에 맞추고 앞 가슴에 드리운 오른쪽 끝을 밑으로부터 우로 한 바퀴 돌려서 교차된 틈으로 올려 뽑고 고리 속으로 내려 뽑아 적당히 조인다.

## 《소년단원의 경례》

소년단원의 경례는 다섯 손'가락을 모은 오른 손을 가슴 앞을 거쳐 머리 우에 올린다. 소년단원들이 서로 인사할 때에는 《준비하자!》라는 선창에 대하여 《항상 준비!》라고 하면서 소년단원의 경례를 한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에는 소년단원의 경례만 한다.

## 《소년단원의 휘장》

소년단원의 휘장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기'발에 《항상 준비!》의 구호를 새기고 그 우에 오각별과 세개의 불'길로 된 홰'불의 표식으로 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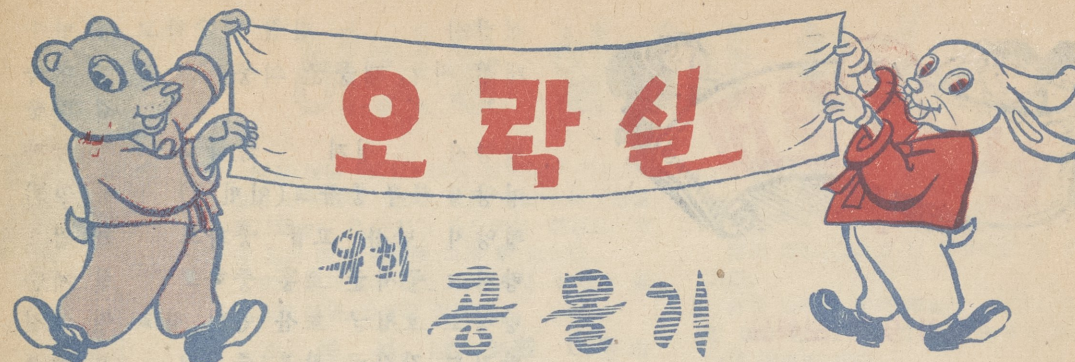
소년단원의 휘장은 왼편 가슴 우에 단다.

## 《소년단 단 위원장, 단 위원, 분단 위원장, 분단 위원, 반장 및 기수, 벽보 주필의 표식》

소년단 단 위원장은 가로 4cm, 세로 3.5cm의 흰 판에 너비 1cm의 붉은 줄 세 줄을 단다.

소년단 단 위원, 단 기수, 단 벽보 주필 및 분단 위원장은 붉은 줄 두 줄을 단다.

소년단 분단 위원, 분단 기수, 분단 벽보 주필 및 반장은 붉은 줄 한 줄을 단다.

이 표식들은 왼팔 소매 우에 단다.

1, 유희 조직

ㄱ,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2~3 편으로 나눈다.

ㄴ, 공 2~3개, 기'발 2~3 개를 준비 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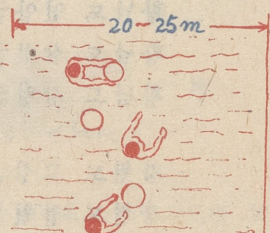
ㄱ,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20~25m
출발선

ㄴ, 각편은 1렬 종대로 출발선을 향하여 정렬 하며 각편에서 뽈을 잘 잡는 유희자를 선택하여 귀환점에 세운다.

3, 유희 방법

ㄱ, 출발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 유희자들은 귀환점에 서있는 유희자에게 공을 던진다.

ㄴ, 귀환점에 서있는 유희자가 받거나 떨어 뜨려도 공을 던진 유희자는 헤염치여 출발선을 떠난다.

ㄷ, 귀환'점에 서 있는 유희자가 공을 받지 못하거나, 공을 떨어 뜨린 경우는 던진 유희자가 헤염치여 가서 다시 공을 던져 준다.

ㄹ, 귀환'점에 서 있는 유희자가 공을 잡게 되면 공을 던졌던 유희자는 귀환'점에까지 헤염치여 가서 공을 받아 몰고 출발선으로 돌아 온다.

ㅁ, 출발선에 돌아온 유희자들은 출발선내에서 뽈을 다음 유희자에게 인계한다.

ㅂ,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빨리 끝난 편이 승리한다.

4, 주의 할 점

ㄱ, 공은 큰 것으로 사용할 것.

ㄴ, 공을 몰 때에는 공이 몸에서 1m이상 떠나서는 안된다.

ㄷ, 귀환'점에 서 있는 유희자는 기'발 대주위 1m이상 떠나서는 안된다.

ㄹ, 다시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귀환'점에 서야할 유희자를 지도자의 지시에 의하여 교체시킬 것.

ㅁ, 물의 깊이는 가슴 이상의 깊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수수께끼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는데 밝은 데서는 잘 보이지 않고 말소리는 들리나 만져보면 사람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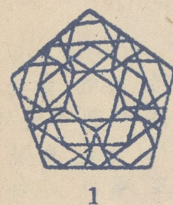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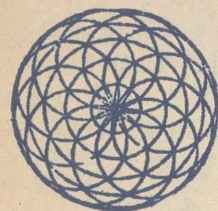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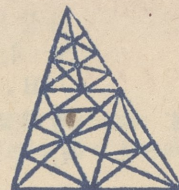
### 찾아 내세요

왼쪽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6 마리의 토끼 중에서 옳게 그린 토끼가 어느것인지 찾아 내세요.

## 알아 맞혀 보세요

아래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그림 1에 오각형이 모두 몇개나 됩니까?

그림 2에 원형이 모두 몇개입니까?

그림 3에 삼각형이 모두 몇개입니까?

1

2

3

## 4호 현상 문제 해답

사진 1—평양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은 국립 중앙 조국 해방 투쟁 박물관입니다.

사진 2—만경대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대 학원입니다.

## 알아 마친 사람

자강도 고풍군 방성 중학교 리 의봉
자강도 초산군 양토 인민 학교 김 석현
평북도 곽산군 곽산 유자녀 학원 림 정평
평북도 신의주시 동명 중학교 손 정자
평북도 구성군 운양 중학교(인민반) 안 창도, 김 동주
개성시 고려 중학교 리 천숙
개성시 만월 중학교 한 민수
개성 지구 개풍군 의풍 중학교 김 인숙
김 명순
평양시 청계 중학교 최 숙자
평양시 사곡 중학교(인민반) 장 영희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 한 경호
량강도 풍서군 로흥 중학교 심 계순
량강도 보천군 호산 인민 학교 원 영길
량강도 갑산군 삼봉 중학교 고 석봉
평남도 강동군 흑령 중학교 서 승록
평남도 개천군 조양 중학교 박 상익
평남도 강남군 상암 중학교 리 윤계
황북도 곡산군 사현 중학교 허 문현
황북도 신평군 광천 중학교 리 영덕
황남도 연안군 신양 중학교 박 일성
황남도 삼천군 방남 중학교 리 종벽
황남도 강령군 강령 수산학교(초급반) 조 태세
강원도 고성군 주둔 인민 학교 주 옥련
강원도 철원군 마장 제 3 중학교(인민반) 최 명길
함북도 회령군 남문 중학교(인민반) 박 성자
함북도 길주군 길남 중학교 (인민반) 장 철길
함남도 허천군 홍군 인민 학교 로 도근
최 영철
함남도 신창군 오매 중학교 (인민반) 전 부경
함남도 요덕군 성천 중학교 (인민반) 김 창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6 호 (총128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246 값 25 전 150,000부 발행



## 야영을 준비하는 동무들에게

# 이것을 알아야 한다

멀지 않아 즐거운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많은 동무들이 경치 좋은 바다'가와 산골짜기들에서 호수'가와 숲속에서 즐겁고 보람 있는 야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동무들이 야영 생활에서 알아야 할 몇가지 야영 지식을 싣는다.

### △ 동, 서, 남, 북을 어떻게 알아 내는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동무들은 라침판이 없이도 나무나 바위 같은 것을 잘 살펴 보고 동, 서, 남, 북을 알아낼 수 있다.

큰 바위나 나무 밑둥의 북쪽켠에는 검버섯이 많이 돋아난다. (그림)

숲속에 있는 개미굴은 나무 밑둥의 남쪽을 향하여 자리 잡고 있다.

나무 가지와 잎들은 남쪽에 더 무성하다.

짤라낸 나무들의 년륜을 보면 북쪽켠이 남쪽켠보다 가늘고 비좁다. (그림 3)

### △ 행군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하는가?

발과 양말, 그리고 신 안바닥을 잘 씻어야 한다.

양말 바닥과 뒤축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잘 매야 한다. 그리고 양말 안쪽에 마른 비누를 바르면 좋다.

### △ 급하게 앓을 때 고치는 법

일사병—날씨가 무덥고 눅눅할 때 지나치게 몸을 쓰면 일어난다. 이 병에 걸리면 머리가 무거우며 맥박이 자주 뛰고 구역이 난다.

이럴때에는 곧 나무 그늘에 눕히고 겉옷을 벗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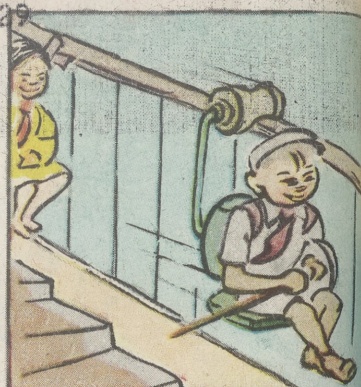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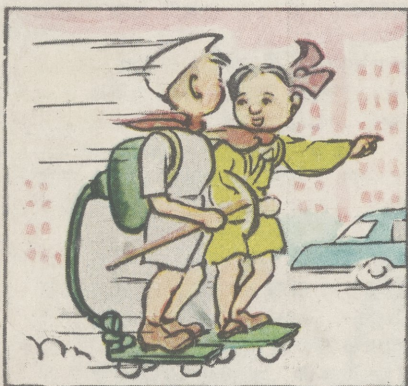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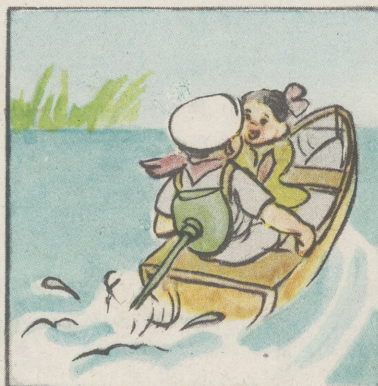
그리고 찬물을 좀 먹이고 가슴에 찬물을 끼언는다. 다음에 머리에 랭수 찜질을 하며 몸을 젖은 수건으로 문질러 주어야 한다.

몸이 데였을 때—약간 데였을 때에는 약이 없으면 상처에 간장물이나 장을 붙이면 좋다. 그리고 올감자 가루를 바를 수도 있다.

뱀에게 물렸을 때—무엇보다 먼저 몸에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린 웃쪽을 졸라맨다. 그리고 곧 상처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서 뱉아야 한다.

그리고 피를 빠는 사람의 입안에 벌레 먹은 이나 또는 입안에 다른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곧 병원으로 데려 가야 한다.

↑ 야영을 떠나게 된 순남이와 영옥이는 간편한 발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 궁전 물리 크루쇼크실 기사 아저씨를 찾아 갔다.

↑ 순남 《야! 참 좋구나 발동기에 도루레를 달았더니 이렇게 층층대를 저절로 내려가는구나.》

↑ 영옥—《차를 타고 떠날가?》
순남—《모타가 있으니 차 탈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자.》

↑ 영옥 《이 넓은 강을 만났으니 야단났구나. 언제 건너가나…》
순남—《걱정 없어. 모타로 푸로페라를 돌려서 가자.》

↑ 영옥이와 순남이는 가는 도중 높은 산을 만났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모타로 푸로페라를 돌려 산을 날아 넘었다.

↑ 순남—《영옥아, 덥다고 했지. 내 선풍기를 돌려 줄게.》
영옥—《야— 시원해.》

↑ 순남—《야영지에 도착했으니 머리를 멋지게 깎고 생활 해야지.》
모타는 리발사를 대신하여 순남이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 영옥—《야! 참 좋구나 모타는 못하는 일이 없구나》 영옥이는 모타에 대리미를 련결시켜 대리미질을 하면서 기뻐하였다.